

# 유럽연합의 접경지역 개발 전략 :

##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의 P. E. D<sup>1)</sup>를 사례로

문남철

(서원대학교 강사)

### 1. 서론

국경은 양국간의 인간의 자유로운 출입과 물자의 자유로운 거래 등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장애기능(barrier function 또는 분리기능(seperating function))과 접촉기능(contacting function)을 지니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자의 기능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유럽연방을 지향하는 유럽연합 회원국간에는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상호의존적인 관계 때문에 국경의 분리기능은 매우 미약하다. 유럽연합의 접경지역의 성격은 국가적 관점과 공동체 관점에서 비교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접경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 구조로 인해 한 국가의 주변부로 고려될 수 있다. 비록 접경지역은 경제적, 정치적 결정의 국가적 중심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존재하지만, 이들 지역 중 일부지역은 유럽단일시장의 차원에서 지리적 중심위치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주변부 지역에 상반되는 이러한 단일시장의 지리적 중심부 지역들은 기업가에게 접근성의 측면에서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인식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국경 없는 유럽을 만들기 위해 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를 좁히고 균형회복을 목표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개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낙후된 국경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접경 양 지역간의 상호활동을 증대시켜 통합된 단일지역환경을 위한 전략들이 유럽연합, 관련정부, 관련 지역과 지방 단체차원에서 활발히 모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접경지역 개발전략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의 접경지역 상황을 개괄적으로 먼저 알아보았고, 접경지역 개발전략을 유럽연합차원과 지역적인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접경지역의 개발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의 P.E.D.를 대상으로 개발전략을 분석하였다. 이 지역은 3개 국가의 국경이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유럽연합의 지리적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럽단일시장의 접경지역 중 지역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연구방법은 수집된 자료를 주로 지도화 및 도표화하여 설명하는 서술적인 방법(descriptive method)을 사용하였다. 주요자료는 유럽연합의 접경지역의 특성과 개발정책에 관해서는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발행한 자료들을 이용하였고, 3개국 접경지역(P.E.D.)의 개발전략에 대해서는 각국의 접경지역개발 위원회와 접경지역 협회(Association Trans-frontalière)에 자료를 요청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밖에 논문이나 신문에 게재된 자료를 보충 이용하였다.

---

1) P.E.D(Pole Européen de Développement)는 영어로 E.D.A(The European Development Area)로, 우리나라 언어로 '유럽개발 축'으로 번역된다. 본 논문에서는 원어인 P.E.D를 그대로 사용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1995년 유럽연합에 가입한 3개국(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을 제외한 12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2. 유럽연합의 접경지역 개발정책

### 1) 유럽연합 접경지역의 경제지리

유럽연합의 육지 접경지역의 길이는 약 1만km에 달한다. 이 중 약 절반은 유럽연합 회원국간의 경계이고 나머지 절반은 비 회원국가와의 경계이다. 이들 접경지역에는 유럽연합 총 인구의 16.3%가 거주하고 유럽연합 전 지역 면적의 22.4%를 차지한다. NUTS 3 수준에서 184개의 접경지역이 존재하며 이들 지역 중 122개 지역은 유럽연합 회원국가간의 접경지역이고, 나머지 58개 지역은 동부유럽 또는 중부유럽의 인접국가와의 접경지역이다.

접경지역은 지역에 따라 매우 상이한 언어·경제·문화·물리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관련된 접경지역 개발 잠재력의 차이성과 어려움을 반영한다. 접경 양 지역이 서로 상이한 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호보완적인 특성을 지닌 협력활동을 추구할 수 있고, 접경 양 지역이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지닌 경우에는 보통 지역간 공동협력을 통해 경제·사회·지역개발 등을 추구할 수 있다.

### 2) 유럽연합의 형성과 접경지역

단일시장의 출범으로 국가간에 존재하였던 기존 국경이 폐지됨으로서 접경지역은 인접국가로부터의 접근성이 증대되면서 지금까지 한 국가의 주변부로 머물렀던 몇몇 접경지역들(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간의 접경지역과, 프랑스와 스페인, 덴마크와 독일,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의 접경지역)은 유럽연합의 지리적 중심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적 통합과 교역의 확대에 따라 이러한 단일시장의 지리적 중심부 지역들은 기업가에게 접근성의 측면에서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언어·문화·사회적 법률·세제 등의 차이에 의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많은 노동자들이 국경을 넘어 인접국가의 접경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실현되면 접경 양 지역간의 이동은 급격히 증가되고 접경지역에는 새로운 고용지역이 출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1980년대 초 이후 유럽공동체와 유럽 접경지역 협회 등의 추진 하에 접경지역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초반부터 유럽연합·관련 정부·지역 및 지방 자치단체에 의한 경제적 통합의 지속,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확대, 협력을 위한 제도적 활동의 강화 등의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 3) 접경지역과 유럽연합의 구조기금

유럽연합은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1990년 INTERREG I 계획을 수립하였고 1994년 이 계획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INTERREG II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은 첫째,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내부와 외부접경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둘째, 내부접경 양 지역 개발을 위해 협력조직의 설립의 장려 셋째, 외부접경지역을 통합된 단일시장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적응 촉진 넷째, 유럽연합의 외부접경지역에서 비 회원국과의 새로운 협력 가능성 추구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INTERREG II 프로그램에 의해 유럽연합 구조기금의 원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지역(NUTS 3)은 공동체의 내부와 외부의 전체 육지 접경지역과 해안접경의 일부 지역들로 설정되어 있으며 유럽연합은 접경지역 협력개발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INTERREG II 프로그램에 의한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회원국들은 관련 국가가 작성한 실행계획 제안서 혹은 기존실행 중인 계획은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계획들에 대한 지원은 관련된 접경지역의 인구, 개발수준, 그리고 제출된 계획의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액은 구조기금 법률과 관련 국가, 지역단체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서 정해진다. 1994-1999년 동안 NUTS 3의 수준에서 184개의 접경지역이 구조기금의 지원을 받았다.

### 3.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 접경지역의 개발전략

#### 1)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 접경지역의 특징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의 접경지역은 풍부한 철광석을 바탕으로 일찍이 제철산업이 발달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친 제철산업의 위기와 더불어 매우 심각한 지역적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3국의 접경지역은 1993년 유럽 단일시장의 형성과 더불어 유럽연합의 지리적 중심위치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이 가진 이점으로는 첫째, 유럽 단일시장의 지리적 중심부에 위치하여 주요 대도시 소비시장과의 가까운 거리 둘째, 과거 철강산업에서 통해 축적된 풍부하고 숙련된 노동력의 공급 셋째, 유럽연합과 관련 정부차원에서 광범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 2) 접경지역 개발계획 구상

지역 경제위기의 확대에 따라 경제·사회적 침체를 억제하고 안정된 지역경제의 재 구조화를 이끌기 위한 접경지역에 대한 공동 개발계획은 1984년 위기지역의 산업전환 문제에 관심을 갖은 프랑스 정부에 의해 구상되어 접경국가인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 제안되어 공동개발계획이 마련되었다.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접경지역 공동개발 계획은 1985년 7월 유럽공동체에서 받아들여졌고 유럽공동체는 이 계획을 위해 총 비용의 50%를 보장하였다. 유럽공동체가 제공한 재정적 수단과 접경지역의 유사한 경제적 특성은 접경국가간의 공동계획의 구상을 촉진하였다.

#### 3) P.E.D. 지역과 P.E.D. 설치 목적

유럽공동체의 재정적 지원 하에 지역경제의 재 구조화를 위해 관련 3개국 정부는 1985년 국경이 접하는 <3국간의 접경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약 20km의 지역에 공동으로 <유럽 개발 축(P.E.D)>과 철강산업 휴간지의 적극적인 개발을 위해 3국의 접경지역에 약 500ha 규모의 <국제 업무지구(P.I.A.)>를 설치하였다. P.E.D 설치 목적은 지역의 경제·사회적 침체를 억제하고 지역경제의 재 구조화를 위해 1995년까지 10년 동안 프랑스 5,500명, 벨기에 1,500명, 룩셈부르크 1,000명 등 총 8천명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방안들이 마련되었다.

- 국제 업무지구(P.I.A.) 조성과 특별지원제도 : 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적 원조
- 실질적인 상호협력과 P.E.D. 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동관리기구설치
- 공공 인프라 확충과 투자기업에 적합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 4) 유럽 구조기금의 P.E.D 출자

1985년부터 1995년까지 P.E.D 개발에 4억 6천만 ECU의 공공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약 50%인 약 2억 6천만 ECU가 유럽 기금에서 지원되었다. 특히 쇠퇴산업지역의 경제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유럽기금의 투자 목적 2에 의해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이 지원되었고, 1991년 이후에는

접경지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INTERREG 프로그램에 의해 유럽연합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 4. P.E.D. 개발성과와 입지기업 분석

##### 1) 입지기업의 특성과 고용창출 효과

1997년까지 P.E.D. 지역에 입지한 53개 산업시설에서 5,972명의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어 목표치의 75%가 달성되었다. 목표치의 48%만이 달성된 프랑스의 경우를 제외하고 벨기에 100%, 룩셈부르크 184%로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또는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얻었다. 53개의 입지기업 중 32개는 P.E.D 지역에 새로이 입지한 산업시설이고 나머지 21개는 기업확장 또는 현지에서의 이전된 산업시설이다. 국가별 입지분포는 프랑스 지역에 30개, 벨기에 8개, 룩셈부르크 15개 기업이 입지하고 있다. 프랑스에 입지한 30개 기업 중 17개 기업은 현지에서 이전된 산업시설이거나 기업확장을 한 기업들이고 13개 기업만이 이 지역에 새로이 입지한 기업들이다. 그 결과 기대한 만큼의 고용창출을 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15개의 기업 중 14개의 기업이 새로이 입지한 기업이고 이 중 8개 기업은 유럽구조기금(FEDER)의 원조를 받지 않은 기업이다. 즉 FEDER의 원조를 받지 않는 8기업은 모두 입지지역으로 룩셈부르크 지역을 선택하였다. 새로운 기업의 입지선호로 룩셈부르크의 경우 기대 이상의 고용창출효과를 얻었다.

기업의 입지지역은 매우 다양하다. 기존의 지역에 투자한 기업에 대한 P.E.D.의 재정적 원조와 매력적인 자연환경에 의해 이들 지역은 P.I.A에 대해 상당한 경쟁력을 지금까지 나타내고 있다. P.I.A에서 창출된 고용인은 P.E.D. 전체에서 창출된 고용의 겨우 1/3만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3 고용 창출은 기존지역들에서 이루어졌다.

##### 2) 입지기업의 국가별, 산업별 분석

P.E.D. 지역에 입지한 53개의 기업 중 29개의 기업은 관련 3개국의 기업이고 나머지 24개의 기업은 외국기업으로 이루어졌다. 29개의 관련국가기업 중 프랑스 기업이 23개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5개 기업이 벨기에 기업이고 나머지 1개 기업만이 룩셈부르크기업이다. 외국투자기업은 미국기업이 12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일본, 이탈리아기업이 각각 3개, 한국, 영국기업이 각각 2개, 독일기업이 1개가 입지하고 있다.

P.E.D.에 입지한 산업분야는 전통적인 철강, 섬유산업에서 화학, 기계, 전자, 정보산업 등 매우 다양하다. 화학, 금속·철강, 기계, 전기·전자 산업분야에 각각 7~9개의 기업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외 음·식료, 섬유, 유리, 목재·인쇄, 정보기술, 원구산업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도 각각 1~2개씩 있다. 특히 전자산업분야는 9개의 기업이 입지하여 창출된 전체 고용자 수의 약 1/3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 지역에 현대화되고 역동적인 전자, 정보산업의 입지는 과거 철강 단일산업의 지역 이미지의 개선과 지역경제의 재 구조화에 의한 지역개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들의 입지는 직접적인 고용효과 이외에 하청 중소기업의 활성화, 경영방식의 현대화, 노하우와 질적인 면에서의 향상 등 지역경제조직의 개방효과와 유인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 3) 기업의 입지요인

P.E.D.에 입지한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입지선택 요인으로는 유럽의 중심적 위치와 재정적 지원을 들고 있다. 즉 유럽단일시장의 형성에 따라 유럽 전시장을 겨냥한 지리적인 중심적 위치와 지역의 재 구조화를 이끌기 위해 새로운 기업 입지 혹은 기존 시설의 확장에 대해 총 투자비의 35%까지

이르는 재정적 원조와 세제상의 혜택이 입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외 값싼 용지가격과 룩셈부르크 시와의 접근성이 주요입지요인이 되었다. 즉 룩셈부르크 시의 금융시설과 국제공항의 이용이 입지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하청기업과의 접근성과 지방·지역시장은 중요한 입지요인이 되지 않았다. 이들 지역에 입지한 외국기업들의 경우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완성단계의 조립공장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위 요인들은 중요한 입지선택의 요인이 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 5. P.E.D.의 문제점과 재활성화

### 1) P.E.D.의 문제점

P.E.D. 특히 P.I.A지역의 유인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상황 혹은 다른 인접지역의 경쟁에서 기인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에 내재된 간접적인 요인들로 지역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서비스, 도시환경, 주거, 문화생활 환경 등의 차원에서 질적인 허약성 등이다. 또한 쇠퇴 산업지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은 도시환경 이외에 지역의 생태학적 상황이다. 이것은 상이한 환경 기준을 적용 받는 미국이나 영국의 기업가에게 있어 부정적인 입지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그 밖의 P.E.D. 문제로는 룩셈부르크 시의 근접성과 관련된 것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이 도시의 영향력이 매우 강화되고 있다는데 있다. 노동시장의 측면에서, 룩셈부르크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에 의해 벨기에와 프랑스로부터 많은 질적 노동력을 유인하고 있고 반대로, 벨기에와 프랑스의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비와 보다 유리한 세무체계는 룩셈부르크 사람들의 주거지를 인접국가 국경 근처로 이주하게 하고 이것은 접경지역의 주거용지가격을 상승시키고 P.E.D.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문화적, 서비스의 측면에서, P.E.D.의 도시들은 룩셈부르크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지역 생활인들의 생활공간이 룩셈부르크 시에 종속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 2) P.E.D.의 재활성화의 시도

관련된 접경국가는 유럽연합의 INTERREG 특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E.D 지역의 단순한 경제적 활성화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행정적, 사회적 차원의 통합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시도하고 있다. 통합된 도시 공동체 건설을 위해 25개 지방 300km<sup>2</sup>와 약 11만 7천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 <P.E.D.의 접경지역권, l'Agglomeration du P.E.D.> 계획이 마련되어 도시계획, 환경, 관광, 문화적 행사 등의 분야에서 자치지역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연구·실행을 통해 지역개발의 촉진과 지역적 통합을 가속화 하고있다. 또한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개발을 위해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통합된 자료에 기초하여 지역권 개발계획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계획은 국가, 지역적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유럽연합의 차원에서의 INTERREG II의 범주에서 재정적 원조는 이 계획의 재정적 기반이 되고 있다.

## 6. 요약 및 결론

유럽연합은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1990년 INTERREG I 계획을 수립하였고 1994년 이 계획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INTERREG II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은 낙후된 접경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내부접경 양 지역의 개발을 위해 협력조직의 설립을 장려, 외부접경지역을 통합된 단일시장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적응을 촉진, 유럽연합의 외부접경지역에서 비 회원국

과의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실현을 위해 유럽 연합의 차원에서 유럽연합 위원회는 관련 지방·지역·회원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접경지역간의 경험과 정보 및 인적교류를 지원·촉진하며,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원국간의 양자 혹은 다자간의 모임을 조직하고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의 접경지역은 유럽공동체가 제공한 재정적 수단과 양 지역의 유사한 사회적·경제적 특성에 의해 지역간 공동협력을 통해 경제, 사회, 지역개발 등을 추구하고 있다.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재활성화를 위해 관련 3개국 정부는 접경지역에 공동으로 <유럽 개발 축(P.E.D)>과 <국제 업무지구(P.I.A.)>를 설치하였으며 P.E.D의 관리, 실행, 향상을 위한 공동관리 기구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유럽연합에 의해 46%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접경지역 개발기금(EUREFI)이 설립되어 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교통·통신망 확충, 도시환경 개선 등 공공 인프라 구축과 투자기업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연구기관이 설립되었다.

1997년 말 현재 53개 산업시설에서 5,972명의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어 목표치의 75%가 달성되었다. 국가별로는 현지기업의 이전 및 확장이 많은 프랑스만이 목표치의 48%만을 달성하고 새로운 기업이 입지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각각 100%와 184%로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또는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룩셈부르크는 새로운 기업의 입지선호로 기대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었다. 지역별로는 P.E.D의 기존지역들에 대한 재정적 원조와 이들 지역의 매력적인 자연환경에 의해 P.I.A 지역의 입지경쟁력은 지금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P.E.D에 입지한 산업분야는 전통적인 철강, 섬유산업에서 화학, 기계, 전자, 정보산업 등 매우 다양하다. 특히 전자산업분야는 9개의 기업이 입지하여 과거 철강 단일산업의 지역 이미지의 개선과 지역경제의 재 구조화를 위한 지역개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들의 입지는 직접적인 고용효과 이외에 하청 중소기업의 활성화, 경영방식의 현대화, 노하우와 질적인 면에서의 향상 등 지역경제조직의 개방효과와 유인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P.E.D에 입지한 기업의 주요 입지선택 요인으로는 유럽의 중심적 위치, 재정적 지원과 저렴한 용지가격 등이다. 즉 유럽단일시장의 형성에 따라 유럽 전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지리적인 중심적 위치와 새로운 투자기업과 기존기업의 시설확장에 대해 총 투자비의 35%까지 이르는 재정적 원조 및 세계상의 혜택이 입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P.E.D의 지역환경의 질적, 구조적 허약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쇠퇴 산업지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지역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서비스, 도시환경, 주거, 문화생활 환경, 생태학적 환경 등이 질적인 허약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P.E.D의 내적 문제로는 룩셈부르크 시의 근접성과 관련된 것으로 노동시장, 거주지, 생활공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 도시의 영향력이 매우 강화되고 있다는데 있다.

마지막으로 관련된 접경국가는 유럽연합의 INTERREG 특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E.D 지역의 단순한 경제적 활성화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행정적, 사회적 차원의 통합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시도하고 있다. 통합된 도시공동체 건설을 위해 접경지역 25개 지방(300km<sup>2</sup>, 약 11만 7천명)이 참여한 <P.E.D의 접경지역권, l'Agglomeration du P.E.D.> 계획에 의해 도시계획, 환경, 관광, 문화적 행사 등의 분야에서 자치지역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연구·실행을 통해 지역개발의 촉진과 지역적 통합을 가속화 하고 있다.

## 참 고 자 료

- Association Transfrontalière, *Association Transfrontalière de l'Agglomération du P.E.D.: Rapport d'Activité 1998 et Programme de Travail 1999-2000*, 1999, Longwy.
- Association Transfrontalière, *The European Development Area : your open gate to the European Markets*, 2000, Longwy.
- Commission européenne, *Fonds structurels et Fonds de cohésion 1994-1999 : Textes réglementaires et commentaires*, 1996, Bruxelles.
- Commission européenne, *Eurostat : Annuaire '98*, 1999, Bruxelles.
- IDELUX, *Pole Européen de Développement : Rapport d'activités conjoint sous présidence luxembourgeoise*, 1997, Luxembourg
- Observatoire de l'urbanisme de l'agglomération du P.E.D., *Communes du projet d'Agglomération du Pole Européen de Développement*, 1995, Longwy
- P.E.D. *Pole Européen de Développement : 10ans de P.E.D. : Un espace nouveau, un avenir partagé*, Longwy-Rodange-Arlon, 1995.
- Schulz C., *L'Agglomération Transfrontalière du Pole Européenne de Développement (P.E.D.)*, *Revue Géographique de l'Est*, n° 17, 1996.